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신뢰의식과 관련된 경험 과학적인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그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탐색을 시작하며 던지는 질문들’에서는, 한국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신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1) 한국의 가정은 흔들리고 있는가? 2) 한국의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3) 한국의 직장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4) 한국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는가? 둘째,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경험 과학적 탐구’에서는,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정리함으로써, 한국인의 신뢰의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토착심리를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여 논의를 시도하였다: 1) 관계문화의 뿌리: 신뢰형성에서 우리 관계의 중요성 2)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 3) 능력보다는 도덕성: 끊임없이 자기수양 하는 인격자에 대한 인정과 역할 충실의 중요성. 셋째,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앞으로의 과제’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의 종합을 토대로, 발전적 한국 문화의 창조를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제안하였다: 1) 신뢰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확대와 외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 2) 합리와 정서의 조화 및 공과사의 분별 3) 신뢰의 기준으로서 자기조절과 더불어 환경 통제 및 객관적인 능력의 균형.

주요어 : 신뢰, 토착심리, 관계 문화, 도덕성, 정서적인 유대관계, 자기조절

* 이 논문은 2004년도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INHA-31509).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yspark@inha.ac.kr

그대는 연(燕)나라 수릉(壽陵)의 어떤 소년이 한단(邯鄲)에 가서 그 곳 사람에게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고사(古事)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 소년은 한단 사람들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래의 걸음걸이까지 잊어버려, 결국 기어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던가?

출처: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游)'

일상생활에서 크게 절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생활사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IMF시대 이전에 진행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7)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학생들이 학업 문제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를 지적했고, 성인들은 주로 가족관계와 관련된 가정생활 문제 다음으로 기타 인간관계 문제를 지적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또한 IMF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업 문제 다음으로 친구관계나 기타 인간관계 문제를 지적하였고, 성인들은 여전히 가족관계와 관련된 가정생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기타 인간관계 문제도 중요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포함되었다. 동일한 주제를 갖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두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로, 인간관계 문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국 사람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성인들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과의 관계였으

며, 학생들도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모습(박영신, 김의철, 2004b)을 띄고, 한국 사람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현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특성들을 규명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히, 관계에서의 '신뢰'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족관계와 같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관련하여 어떠한 토착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된다. 신뢰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에서 특별히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기대했던 것에 절망하거나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신뢰가 약화되는 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지, 그러한 신뢰의식에 함축되어 있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스며들어 있는 토착심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대해 최근에 경험 과

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들이 함축하고 있는 한국인의 신뢰와 관련된 토착적인 심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한국인의 토착심리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조각조각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탐구(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 Kim, Park & Park, 1999)에 기여하는 자료로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이 글의 서두에 제시하였다. 장자의 소요유에 나타나고 있는 ‘걸음걸이 배우기’(김영, 2003)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 우화에 등장하는, 다른 지역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래의 걸음걸이까지 잊어버린’ 소년의 어리석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서양의 이론 틀에 몰입하여 우리 문화의 토착적 특징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다 보면, 한국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물리학이나 화학 이론처럼 심리학 이론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사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서양의 심리학 이론은, 피가 흐리지 않는 박제가 되어 버린 동물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걸음걸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 되기를 꿈꾸며 시도되었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탐색을 시작하며 던지는 질문들’에서는, 이 글의 제목을 결정하였을 때 떠오른 몇 가지 질문들을 간단히 기록하기로 한다. 여기서의 질문들은, 한국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라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에 주목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경험 과학적 탐구’는,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현실에서 관찰되는 신뢰관련 심리현상들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을, 경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증거들의 재분석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탐색의 결과들이 시사하는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그 과제는 신뢰와 관련된 이 분야의 심리학적인 연구 과제라는 미시적인 측면과, 우리 사회의 신뢰 구축과 관련된 민족적 과제라는 거시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 탐색을 시작하며 던지는 질문들

1. 한국의 가정은 흔들리고 있는가?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는데 아이가 뒤에서 울며 따라왔다. 그러자 증자의 아내가 아이를 달래면서 말했다. “집에 돌아가 있어라. 내가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줄게.”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막 돌아오자 증자는 곧 돼지를 잡으려고 했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내가 아까 아이에게 한 말은 농담이었는데, 정말로 돼지를 잡다니요?”

이에 증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와 어떻게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이들은 사리를 잘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대로 실행하는 법이오. 지금 당신이 이 아이를 속인다면, 바로 이 아이에게 사람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소. 어머니가 아이를 속이면 아이도 그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은 결코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니오.” 말을 마치자 증자는 돼지를 삶아 아이에게 주었다.

출처: ‘한비자(韓非子)’의 ‘외저설(外儲說)’

한국인의 신뢰의식을 탐구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한국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의식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찰자로서의 자기가 관찰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신뢰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기관 또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가족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가정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크게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가정에서 배우자간에 극단적인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부부간에 불만이 있어도 자식을 생각해서 참아온 전통적인 한국 부모들의 의식보다, 개인적인 자기의 인생에 더 관심을 갖는 현대 한국 부모들의 선택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면 부모자녀관계는 어떠한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 역시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은 자명하다.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사회의 음지생활에서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마, 아빠 싫어 집엔 절대 안 가요”(조선일보, 2003년 1월 18일)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반응은 문제

의 핵심을 보여준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통계 결과 역시, 한국사회에서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족간의 유대와 신뢰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대가족의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핵가족화 됨으로써, 노인 독거가정이나 노인부부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였으나 노후에 부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소외와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인들은 우울증으로 고통 받기도 하고,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은 한국의 가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왠지 불안하고, 단순한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전업주부였다면, 최근에는 직업을 가진 주부들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와 교류하는 평균 시간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질적 변화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 증진을 위한 지혜를 요구한다.

자녀교육의 지침을 제공하는 ‘증자의 가르침’(김영, 2003)은 부모와 자녀 간에,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간에 신뢰 구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암시하고 있다. 한 번 말한 것은 지킴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이 우화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가정이 뿌리를 내려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조차도,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시골 훈장이 장에 가서 알사탕을 많이 사다가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혼자만 먹었다. 아이들에게는 ‘이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다’라고 말했다. 훈장은 자기가 나들이 간 틈에 아이들이 꺼내 먹을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에 속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저 사탕을 먹어 볼까 궁리하던 차에 하루는 훈장이 나들이를 갔다. 한 아이가 이 틈에 사탕을 먹으려고 피를 냈다. 먼저 훈장 선생이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벼루를 깨뜨렸다. 그러더니 사탕을 하나씩 글방 아이들 입에 넣어 준 뒤, 너희는 누워서 눈감고 죽은 체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모두 사탕을 일에 물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데 훈장 선생이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야단을 쳤다. “어떻게 너희는 읽으라는 글은 안 읽고 모두 드러누워 있던 말이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대답했다. “예, 우리가 선생님이 나들이 나간 틈에 장난을 좀 하다가 그만 선생님이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에, 모두 죽으려고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약을 선생님 서랍에서 꺼내 먹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출처: ‘한국 구전설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학교 붕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붕괴란 ‘학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지도력이 상실된 상태’로 정의(윤철

경, 1999)된다. 현직 교사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교육 현장에서 학교 붕괴가 ‘약간 있다’(48.6%) 또는 ‘매우 많다’(38.1%)는 인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붕괴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있다’ 50.8%, ‘매우 많다’ 20.0%) 학교 붕괴 현상을 인식하였다.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사제관계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사회에서 부각되면서 이에 놀라게 된 많은 기성세대들도, 이에 동감하게 된 것 같다. 물론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육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가 스승을 배워야 할 존경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부모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장인 정도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 물론 대부분은 부모-자녀 관계처럼 교사-학생 관계도 건설하다. 그렇지만 건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관계는 교육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 붕괴란 지적 성취의 하락으로 인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사-학생 관계가 붕괴될 때,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거나, 수업의 효과도 하강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부모나 친구에 대한 신뢰수준보다 낮았다(김의철, 박영신, 2004a). 낮은 신뢰수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일탈 청소년에게서 심각하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일탈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일탈행동에 가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먹으면 죽는다는 알사탕’(김영, 2004) 우화는 과거 서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평소에 학생이 교사의 언행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교사의 가르침이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결국 교육의 힘이 이처럼 약화된 서당 붕괴 현상은, 사제간의 신뢰 붕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한국의 직장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옛날에 한 사람이 부채 장사를 하는데 부채 장수 마누라는 해마다 자기 서방이 팔 부채를 새로 받아 오면 거기서 몇 자루를 빼내서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그런데 한 해는 그만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할 지경이 되었다. 얼마 있던 재산도 없어져 장사를 못하게 될 지경이었다. 그때 마누라는 그동안 모아 둔 부채를 내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은 달력 장사를 하는데 달력 장수 마누라는 부채 장수 마누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래 보겠다고 해마다 달력을 몇 책씩 빼서 모아 두었다. 이렇게 몇 해를 모아 두었다. 그런데 달력 장수도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할 지경까지 되어 장사를 더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달력 장수 마누라는 그동안 모아 둔 달력을 내주면서 이것을 팔아 장사하라고 했다.

출처: ‘한국 구전설화’

가정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고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고 본다면, 이와 달리 직장은 각 직장이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생산해내기 위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가정이나 학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장에서 집단 역

동을 들여다보면, 가족적인 분위기와 결속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업과 관련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식회사 보령제약 경우에 ‘직원은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장이 25년간 매달 사원들의 생일잔치를 차려주고 참석(조선일보, 2003년 12월 11일)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해찬들’이 2003년도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대상을 받는 공적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 IMF 한파를 헤쳐 나가기 위해 -- 인원 감축 없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한 가족 공동체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 이러한 사실은 IMF시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기업이 가족 공동체 문화를 강화시켜 도움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가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기업 집단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구성원들에게 대해 가족이라는 표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무조건적인 신뢰를 심어주고,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간의 화목한 관계가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도움이 되며, 작업자들의 헌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인 기업 조직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간에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관계의 속성상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직원의 생일잔치를 매달 차려 준다는 것,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원 감축 없는 구조조정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이익집단으로서의 결과적 이익 못지않게 관계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이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화로운 관계를 기초로 생산을 해 나가는 것을 ‘수단으로서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에, 생산을 해서 이익을 산출한 결과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활용한다면 그것은 ‘목표로서의 조화’(Kim & Park, 2003a)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조직은 기업 본연의 ‘수단으로서의 조화’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지만 ‘목표로서의 조화’를 상당부분 심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객관적인 일은 생산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일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인간관계적인 조화가 매우 중요시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질적인 두 면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익숙해 있는 화목한 인간관계가 확인되고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 및 신뢰감을 형성해 줄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올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관계가 더불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기업의 경영을 서양식 경영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한다면, 그러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취동기나 회사에 대한 헌신도 등을 촉발시키는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약점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IMF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직원 전체가 협심하여 놀라운 위기극복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역경의 시기에 오히려 성공한 기업도 있었고, 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여 문을 닫게 된 기업도 있었다. 물론 기업의 성패는 자본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기업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자세 또한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만약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의 파악과 역동에 무심하고, 서양의 성공모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한다면,

‘부채 장사 마누라’를 무작정 쫓고 있는 ‘달력 장사 마누라’(김영, 2004)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기업에서의 성취도 학업에서의 성취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 고유의 심리적 역동이,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현재 익숙해 있는 토착적인 문화에 토대한 방향으로만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투명성 결여나 연고주의 등을 그러한 문제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합리적인 경영모형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적절한 토착적인 기업경영 문화가 창조되어 가야 할 것이다.

4. 한국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바른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子曰 其身正이면 不命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命不從이니라)

출처: ‘논어’ 제 13편, 자로 6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을 연구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b)를 검토해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 학생과 성인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불신, 정치인 자질 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즉 한국 정치를 믿을 수 없고 정치인은 자질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78.2%가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

장 대표적인 이유가 부정부패였으며, 이외에도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와 같은 이유들이 핵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을 불신하는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 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에 대한 표상이 매우 부정적이고, 그것이 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부패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부정부패/비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기주의, 무질서, 빈부격차, 연고주의, 정치불신, 분단상황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부도덕한 정치지도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외에 부정부패/비리, 이기주의, 공동체의식 부족, 연고주의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주로 부정부패나 정치가에 대한 불신과 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문제를 질문하였을 때에도, 부정부패라는 반응이 응답자의 과반수였으며, 이외에 이기주의, 권력남용, 부정직함, 파벌주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응답들이 추가되었다(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질문하였을 때, 청렴결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정치지도자의 능력보다도 도덕성을 가장 핵심이 되는 자질로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은 부정부패로 인한 비리가

가득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지각 간에 괴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은, 가족이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이러한 부정적인 정치 인식은, 한국 사람들의 낮은 정치효능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효능감은 관계효능감이나 어려움 극복효능감보다 훨씬 낮았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공자가 논어(성백효, 199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도자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자의 지적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정치나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아예 포기하거나, 불신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들은 ‘한국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인식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에 대한 표상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II.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경험 과학적 탐구

1. 관계문화의 뿌리:

신뢰 형성에서 ‘우리 관계’의 중요성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言)은 쓸모가 없소”

그러자 장자는 말했다. “쓸모없음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쓸모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오 저 땅은 텅텅이 넓고 크지만 사람이 이용하여 걸을 때 쓰이는 곳이란 밭이 닿는 곳뿐이오 그렇다고 밭이 닿을 부분만 두고 나머지를 파내어 황천에 이르게 한다면 그래도 쓸모가 있겠소”

해자가 말했다. “쓸모가 없을 것이오”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그러니 쓸모없는 것도 실은 쓸모 있음이 분명하지 않소”

출처: ‘장자’의 ‘외물(外物)’

신뢰 형성에서 우리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결과는 특정 인간관계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몇몇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부모자녀관계에서 신뢰의 이유를 살펴보

기로 하자. 그림 1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청소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이다. 그림 1의 왼쪽에, 일반 고등학생의 부모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부모집단 모두 다른 어떤 이유보다 ‘혈연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오른쪽은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집단을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의 부모집단으로 분류하여, 이 두 하위집단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이다. 자녀가 초범이든 재범이든 간에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 10명 중 6명 정도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로 혈연관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혈연관계 때문에 자녀를 신뢰한다는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자녀가 비록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피로 맺어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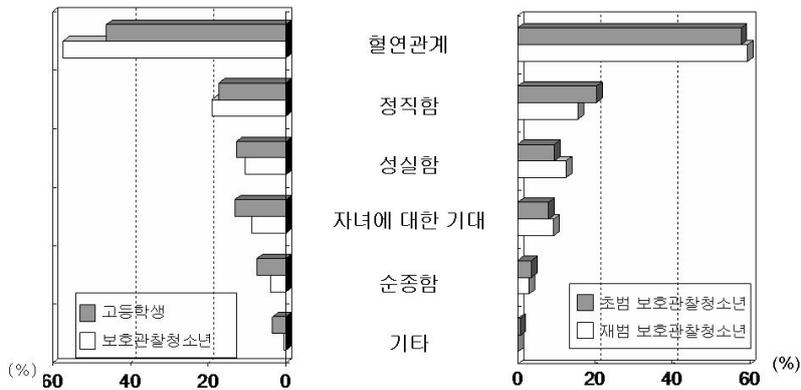


그림 1.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다는,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의 대상인 자녀를 무조건 믿는다는 시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특정관계가 신뢰형성에서 중요함은, 부모와 자녀간의 혈연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자녀의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a)에서도 특정한 우리 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어머니 집단이 자녀의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자유 반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된 이유 몇 가지 중에서,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어머니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 선생님을 신뢰할만한 특별한 이유보다는, 나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를 무조건 신뢰한다는 태도가 가장 현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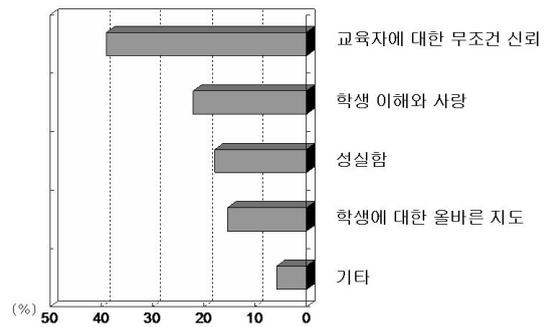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가 자녀의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a)

이러한 결과 또한, 상대와 나의 우리 관계 속에서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상황에서는 그림 1이나 그림 2에서와 같이 그러한 관계 중심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두드러지게 중요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 상황에서는 어떠할까.

그림 3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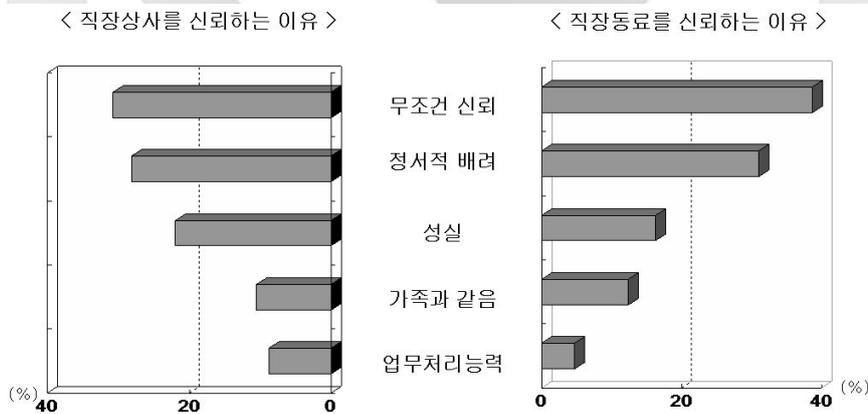


그림 3. 직장인의 상사와 동료에 대한 신뢰
출처: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이다. 그림 3의 왼쪽에서 직장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를 보면, 상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오른쪽에서 직장 동료로 신뢰하는 이유도 직장 상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직장 동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이와 같이 직장 상황에서의 인간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가장 현저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집단으로서 직장은, 가정이나 학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갖고 집단역동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가정(그림 1 참고), 학교(그림 2 참고), 직장(그림 3 참고)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신뢰를 다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정리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b)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를 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에, 응답자의 거

의 반 정도가 ‘우리나라’라는 반응을 함으로써 신뢰의 다른 이유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한국 사회를 신뢰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다른 구체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 및 직장인이 상사나 동료를 신뢰하는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처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가, 그것이 사람이든 국가이든 간에 나와 연결되고 있는 고리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의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니까 즉 조국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개의 그림들에서 확인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신뢰 형성에서 ‘우리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우리 관계에 대한 인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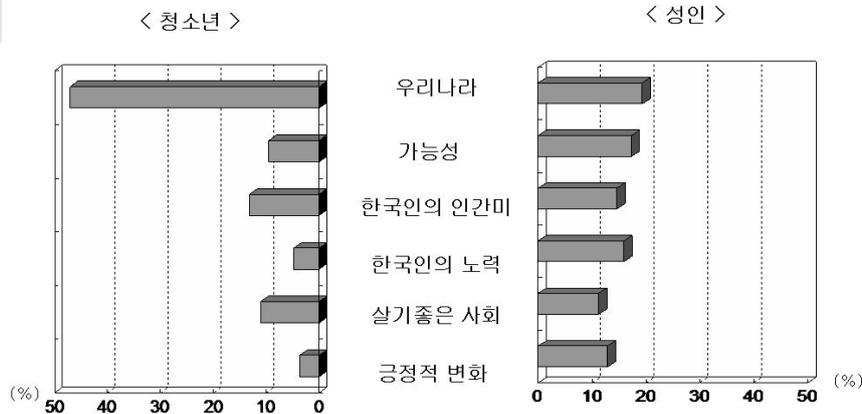


그림 4.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인의 신뢰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핵적인 토착심리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지움이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져 있는 관계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관계인식은 한국인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속해 있는 동양이라는 큰 틀에 기본적으로 배여 있는 정신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 밝힌 해자의 질문에 대한 장자의 답변, 즉 ‘쓸모없는 것의 쓸모 있음’(김영, 2003)을 간과하고 있는 장자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이 상호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 지워져 있는가를 깊이 있게 밝힘으로써, 동양의 정신을 찾아가자 하는 후학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준다. 하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다른 존재와의 어울어짐 속에서 존재함으로써, 개별자로서의 존재가 아닌 관계지움 속에서의 존재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자의 답변 속에는 동양정신의 핵심 중 하나를 꿰뚫는 통찰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동양의 정신이 가정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 흔히 발견되듯 주체 A와 주체 B 사이의 관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존재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A와 주체 B의 존재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존재 내에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개념이 동양인의 인식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Kim(2003)은 관계문화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림 5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자기나 타인이나 또는 기관 그 자체를 신뢰하기 보다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를 신뢰하는 방식을 띄고 있음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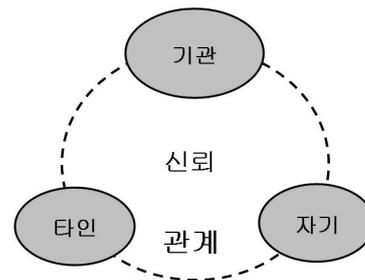


그림 5. 관계문화에서 사람들의 신뢰
출처: Kim (2003)

적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들이 바로 위의 네 개 그림으로 제시된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타인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속성에 토대하여 신뢰하기보다,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신뢰(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고)한다. 또한 기관이나 조직을 그 자체의 역할이나 기능 및 성과에 토대하여 평가하기보다, 자기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신뢰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 중심적 사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관계문화의 기초에 대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 비교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설명된 바 있다. Kim(1995)은 이러한 개념 비교를 그림 6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였다. 즉 개인주의 문화는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토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계약적 관계를 토대로 맺어지고,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이를 주장한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개별적인 성취가 중요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는 우리성과 관계성에 토대한 유교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집단의 복지와 조화가 중요하고, 집단 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부각된다. 인간관계는 계약적이기



그림 6. 관계문화의 기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 비교

출처: Kim (1995)

보다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으며, 권리보다는 의무가, 주장보다는 순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적인 성취보다는 집단에서의 확장에 보다 관심이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개인의 수양과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2.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

담임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교실에 들어 오셨다. 성적표를 나눠 주시더니 15등 안에 들지 못한 애들은 다 나오라고 하셔서 때리셨다. 조금씩 학교가 맘에 들지 않았다.

나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려지고 반 애들은 내게서 등을 돌려갔다. 결국은 믿었던 같이 다니던 친구들마저 내게 등을 돌렸다. 억울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서서히 난 반에서 결도는 아이가 되었다. ---

학교가 싫어졌다. 학교 교문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고민 끝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자퇴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내 얘기는 들

을 필요도 없다는 듯 나가보라고 하셨다. 집에 와 엄마한테도 말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필쩍 뒀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난 교무실로 불려갔다. '넌 반사회적인 애야. 내가 그렇게 잘났어? 갑자기 왜 그래! 정신병원에 가봐라.' 내게 관심은 있었나요? 성적 말고 체계 관심을 가져주신 적이 있었나요? 묻고 싶었다. 내 정신은 말짱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나의 학교생활은 ---

자퇴한 후부터 엄마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다. '이러려면 집을 나가버려라. 창피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왜 이려고 있냐. 동네 창피하니까 낮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엄마는 내게 너무 잔인하게 대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지금은 엄마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 이해가 되지만 그땐 마냥 밍기만 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나도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막 살아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독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조금 씩씩한 깨달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사람을 너무 믿지 말 것.

출처: 김지수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김지수라는 소설가가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김지수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쓴 체험수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04)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다. 공부만 하라고 몰아붙이는 담임선생님 말에 반항심만 생기고, 왜 맞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엄청나게 맞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따스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을 못해 선생님을 찾아가 자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정신병원이나 가보라고 냉소적인 말만 뱉어내는 선생님에 대해 신뢰를 형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선생님을 찾아 온 지수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따스하게 대해 주었다면, 지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한 친구들이 지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따돌리니, 친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엄마마저도 자퇴한 딸이 창피하다고 욕박지르기만 할 때, 지수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선생님, 친구, 엄마와 같이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없게 된 지수는,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가득해지고, ‘학교 밖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김지수의 체험 수기는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결핍이, 얼마나 치명적인 부적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에서의 불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토착심리와 관련된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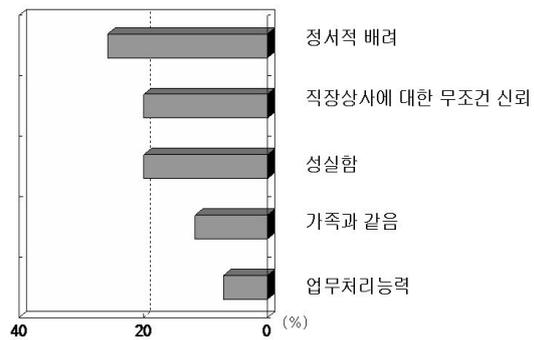


그림 7.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을 보여주는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청소년의 친구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림 7은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뢰의 이유로서 다섯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 배려가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정서적 배려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 면에서의 정서적인 배려도 포함하였다. 즉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을 직장 일과 관련하여든지 또는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든지 간에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태도를 보일 때, 아랫사람들이 상사를 믿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상사의 업무처리능력도 중

1) 앞의 그림 3은 평사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의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 대리 이상(과장, 부장 이사)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응답한 결과이다. 그림 7은 직장에서 상사의 역할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평사원 집단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장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요하지만, 상사 개인의 업무처리능력보다는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정서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신뢰의 이유로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직장에서조차 이와 같은 정서적인 배려가 인간관계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다른 연구(김명연, 이영석, 2000)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그림 8은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난 신뢰의 이유(김의철, 박영신, 2004a)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네 가지의 신뢰 이유 중에서 ‘의지가 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친밀함’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한마디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친밀함을 느낄 때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상사의 업무처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포함(그림 7 참조)되어 있었으나, 청소년 친구들 간의 신뢰 이유 중에서는 능력 차원과 관련된 응답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이성적인 면보다는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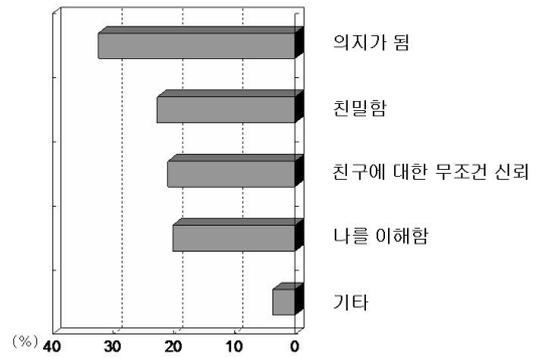


그림 8. 청소년이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

적인 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청소년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김의철, 박영신, 2004)를 분석한 그림 9를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나 어머니에 대해서 모두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즉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관찰하고 인식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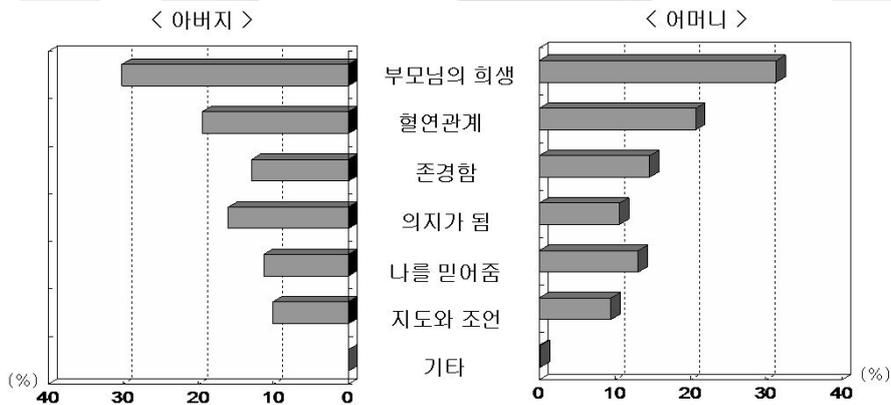


그림 9. 청소년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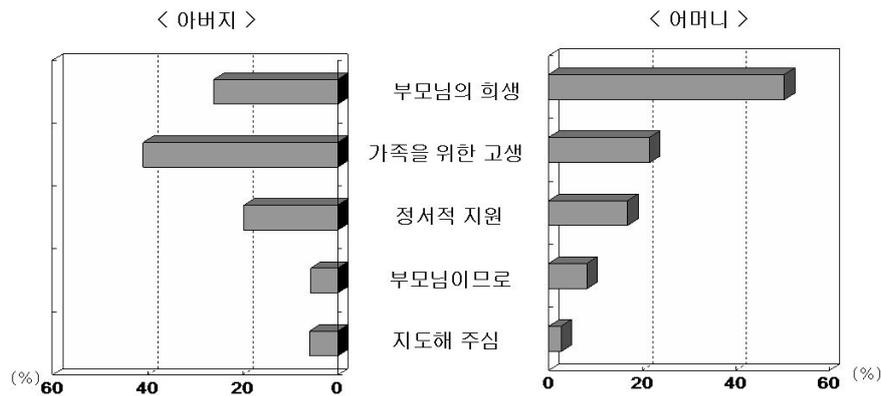


그림 10.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

출처: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느끼는 이유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10을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한 고생’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희생’이 지적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고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반응의 순서가 다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나 고생을 자녀들이 지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희생이나 고생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감동시켜 부모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이유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이 함축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Kim(2003)은 유교철학에서 윤리 도덕의 기본바탕으로 제시한 오상(五常)을 활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림 11은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발달의 맥락에서, 신

2)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덕(德)이라고도 하고, 본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실현된 상태를 덕이라고도 한다. 유교에서는 근본적인 덕으로서 인의 예 지 신의 다섯 가지 덕 즉 오상(五常)을 중시해 왔다. 인의 예 지의 사덕(四德)은 공자가 말한 것을 맹자가 받아들여 구체화한 것이고, 동중서는 이 사덕에 신의 덕을 추가하여 오상이라 했는데, 유교에서는 이 오상을 윤리 도덕의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공자는 인간이 도덕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근거를 심성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인(仁)이다. 공자는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으로서 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인을 인간의 본성이고 (“인이란 인간다움이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이 실천해야 할 도라고 했는데, 인을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다. 인은 자애 사랑 동정 어질고 인자하다는 의미이다. 의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공자는 의(義)를 첫째로, 행위의 기준이 되는 최고의 원리로 언급했다(“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잇속에 밝다”) 둘째로 이로움에 대립되는 정의 내지 절제의 의미로 썼다(“이로운 것을 보거든 의로운가를 생각하라”) 예(禮)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넓은 의미는 예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좁은 의미의 예는 예의의 의미로서 구체적인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자는 이

뢰 형성의 과정을 가설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공자도 인간다움이나 훈훈한 인정을 의미하는 인을 인간의 천성으로 봄으로써, 인을 핵심으로 하고, 다른 덕(의, 예, 지, 신)은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정진일, 1997) 보았다. 물론 유교 철학에서는 의 예 지 신 사이의 발달적 순서를 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차 발달하여 의 예 지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교철학의 시각을 토대로 동아시아 사람들의 신뢰를 접근해 볼 때,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인(仁)이고, 그것은 ‘자에 사랑 동정 어질고 인자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이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음을 그림 9는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이,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형성에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신뢰의식과도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신뢰형성에서 이와 같이 정서적

런 예가 갖는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중의 하나를 조화에서 찾았다. 즉 조화로운 인격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예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용맹스러우면서 예가 없으면 난폭해 보이고, 곧으면서 예가 없으면 박절해 보인다”) 지(智)는 ‘지혜 슬기롭다 알다’의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는 앎 곧 지식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곧 도덕적 판단의 덕을 가리킨다.(“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를 걱정하라”) 신(信)은 믿음 곧 신뢰의 의미로서, 성실함, 정직함 속이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인간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신뢰가 필요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덕이다. 맹자는 오류의 하나로서 벼를 사قم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진일,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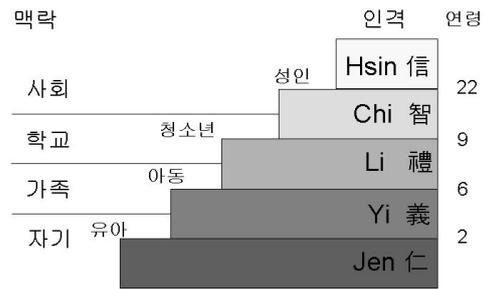


그림 11. 발달단계의 맥락에서 본 신뢰의 형성: 유학철학을 기초로

출처: Kim (2003)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개인주의-집단주의와 남성성-여성성을 비교한 결과(Hofstede, 1991)와도 일관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두 차원의 좌표상에 여러 나라들을 표시하였을 때, 한국은 집단주의이면서도 여성성이 높은 사회에 포함되었다. 여성성이 높은 사회의 특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보호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사회화과정에서 ‘약한 것에 공감’하고, ‘다정다감한 교사들이 인정을 받는다’. 반면에 남성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성공과 진보’이며, 인간관계보다는 ‘돈과 물건이 중요’하며, 사회화 과정에서는 오히려 ‘강한 것에 공감’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성이 강한 사회는 정서적 배려가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서도 정서적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성-여성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여성성이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형성과정에서 정서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이러한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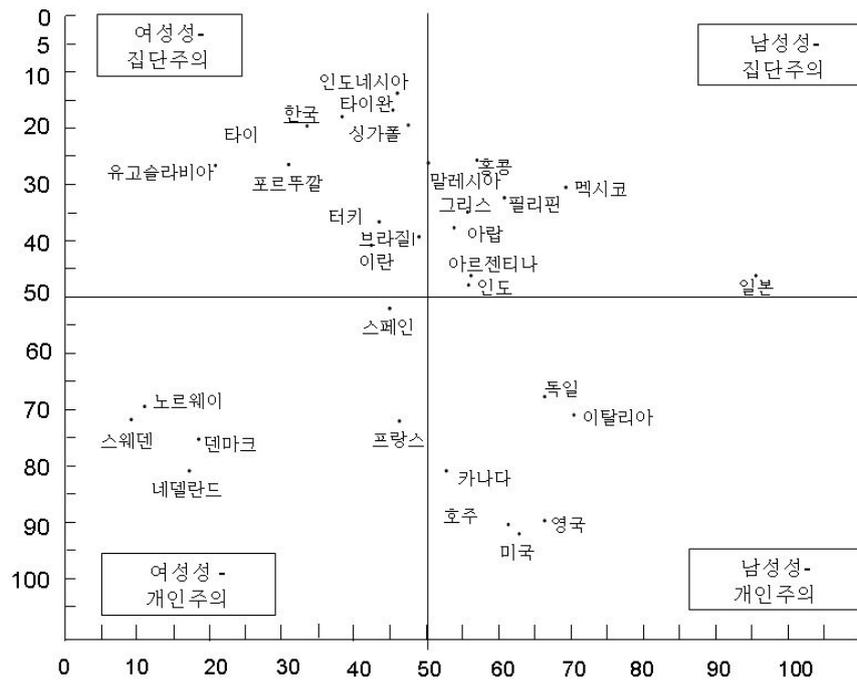


그림 12. 개인주의-집단주의와 남성성-여성성 비교

출처: Hofstede (1991)

을 알 수 있다.

3. 능력보다는 도덕성: 끊임없이 자기수양 하는 인격자에 대한 인정과 역할 충실의 중요성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란을 겪을 때 나물국조차 마시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레 동안 밥 한 톨 먹지 못하고 낮에도 잠이나 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제자 안회가 양식을 조금 구해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되어 갈 때쯤 공자는 안회가 술에서 밥을 손으로 집어먹는 것을 보았으나 못 본 척했다.

조금 있다가 안회가 공자에게 진지를 들고 하자, 공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꿈속에서 나는 가장 깨끗한 밥을 선조께 먼저 갖다 드렸지.”

그랬더니 안회가 말했다. “조금 전 제가 밥을 지을 때 시꺼먼 재가 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워진 밥을 버리기가 아까워 제가 그것을 손으로 퍼먹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자탄하면서 말했다. “내가 내 눈을 믿었으나 그것도 정말 믿을 게 못 되고 내 마음을 의지하였으나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구나!”

출처: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임수(任數)’

신뢰와 관련된 경험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인 토착심리 중의 하나는, 능력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3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4b)이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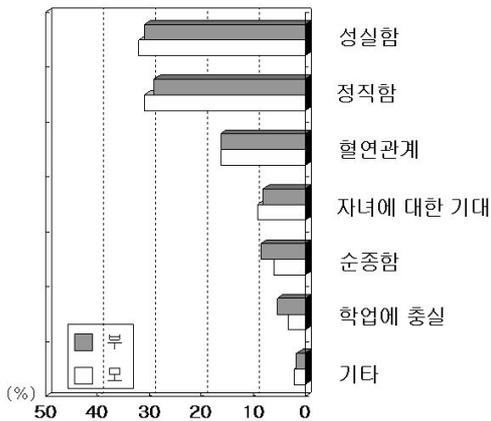


그림 13.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박영신, 김의철 (2004b)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다. 이 두 반응을 합한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각각 60%가 넘었다. 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이유들 중에서 자녀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관찰할 때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학업에 충실’이 부각되었는데, 학업과 관련된 면이 신뢰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도 흥미롭거니와, 학업에서의 높은 성취와 같은 결과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학업에 충실한 자세라는 도덕적 태도 중심의 판단이 여기에서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그렇다하더라도,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조차도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신뢰의 이유로 부각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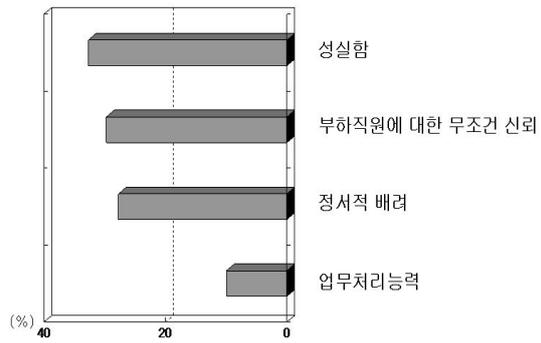


그림 14. 직장상사의 부하직원에게 대한 신뢰

출처: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할 수 있다. 그림 14를 보면, ‘성실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비록 ‘업무처리능력’이 대표적인 이유로 포함되고 있지만, 다른 이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조차 실제적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보다는, 성실성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측면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신뢰의식의 기반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을 완성된 존재로 간주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격자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하 직원에게서 이러한 성실한 노력이 관찰될 때 아랫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비단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나 국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질문(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하였을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렴결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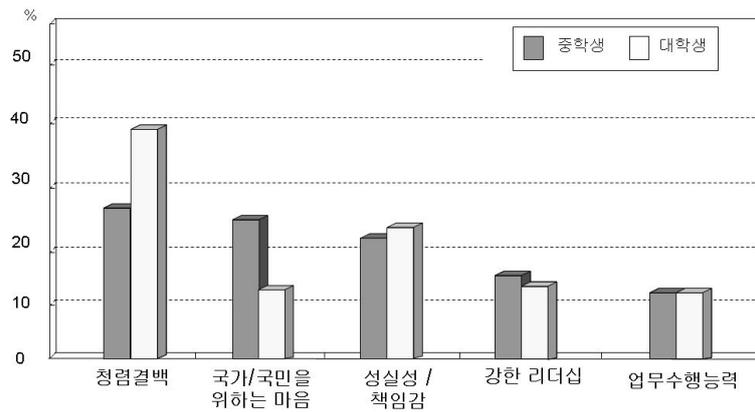


그림 15.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출처: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일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가나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든가 ‘성실성/ 책임감’ 등이 지적되었다. ‘업무수행능력’도 대표적인 이유로 포함되었으나, 다른 이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국회의원을 신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국회의원의 국정을 처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성실한가와 같

은 다분히 도덕성에 초점을 둔 평가를 기초로 신뢰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질로 청렴결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그림 15 참고)은, 한국 청소년들이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는 기준으로서 도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외국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두드러진 한국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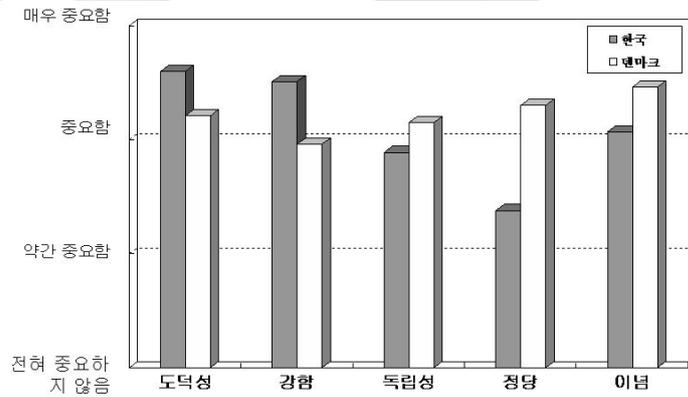


그림 16. 정치지도자의 자질: 한국과 덴마크 비교

출처: Helgeson & Kim (2002)

의 특징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림 16은 정치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한국 사람과 덴마크 사람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Helgeson & Kim, 2002)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보다 ‘도덕성’이나 ‘강함’을 매우 중요한 자질로 평가하였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이념’ ‘정당’ ‘독립성’을 훨씬 더 중요한 자질로 평가하는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정치지도자가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이유로서 도덕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도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상당부분 공유되는 특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과 그들의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지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그림 17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 비리’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부정부패나 비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많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성과 관련된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 15와 그림 16에 나타나고 있는 바처럼, 한국 사람들이 신뢰의 기준으로서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타락한 우리 사회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동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전을 구성하고 있는 앞면과 뒷면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불신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또한,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의 이유를 자유반응형식으로 응답한 것을 정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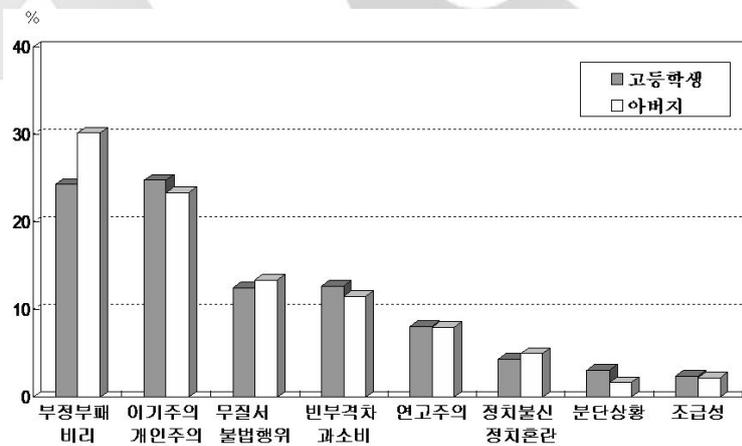


그림 17.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출처: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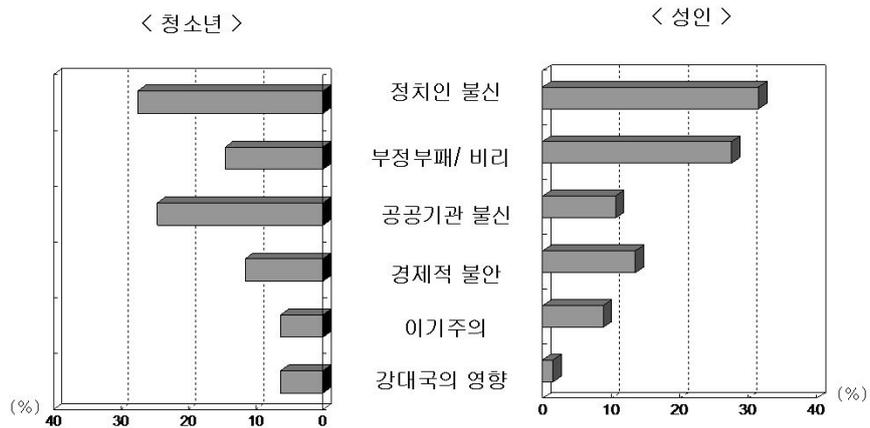


그림 18.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의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b)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b)이다. 청소년이나 성인 집단 모두, ‘정치인 불신’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성인은 ‘부정부패/ 비리’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고, 청소년 경우는 ‘공공기관 불신’ 다음으로 ‘부정부패/ 비리’를 많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청소년 세대나 기성세대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의 정치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정치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청렴결백’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사실(그림 15 참고)을, 그림 18의 결과와 관련시켜 보기로 하자.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치가가 청렴결백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는 청소년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김의철, 박영신, 2004a)를 정리한 결과이다. ‘학업지도’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이 외에도 여

러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다. 선생님이 학업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청소년들이 선생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그 개인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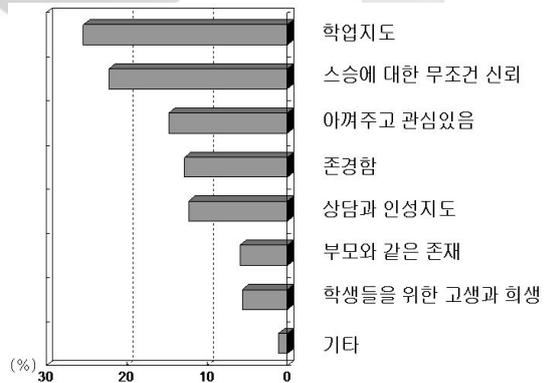


그림 19. 청소년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

출처: 김의철, 박영신 (2004a)

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토대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신뢰 형성은, 신뢰 대상자의 능력 정도보다 도덕성과 관련된 특성에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그림 13~그림 15 참고)을 알 수 있다. 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신뢰한다기보다, 성실하고 정직하여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역할에 대한 충실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그림 19 참고)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은, 그 뿌리가 동양적 정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 제시한 여씨춘추에서 공자가 제자 안회에 대해 ‘오해’(김영, 2003)한 일화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를 시사해 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는 성현으로 존경받는 공자와 같은 분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 경우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 나가지 않으면, 진실을 크게 왜곡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 인간은 지속적인 자기수양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아 계속 노력하여 계발하고 도덕성을 갖추어 나갈 때, 공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일화는 시사한다. 공자가 제자를 오해한 일화가 함축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경험 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에서 밝혀진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신뢰’하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신뢰의식 속에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앞으로의 과제

이상에서 일련의 경험 과학적 탐구 결과에 토대하여,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신뢰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주의의 문화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둘째, 신뢰의 이유로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기보다 정서적인 유대와 인정의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윗사람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윗사람과의 정서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나아가서 그것이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능력이나 전문성을 신뢰 한다기보다는, 성실 정직과 같은 도덕성에 기초한 신뢰의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종합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신뢰 형성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확대와 외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

서무귀가 무후를 만났을 때 무후가 말했다. “선생께서 산 속에 살면서 도토리야 밤을 주워 먹고 파와 부추를 삶도록 들면서 오랫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아 지금 매우 늙어 버린 것 같소 그래, 고기와 술맛을 보러 오셨군요 아무튼 그대가 온 것은 과인의 나라에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소”

서무귀가 말했다. “저는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아직 한번도 임금님의 호사스런 술과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임금님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무슨 소리오 어떻게 나를 위로한단 말이오?”

“임금님의 정신과 몸을 위로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천지자연이 만물을 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잘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못하지 않습니다. 임금 계선 홀로 나라의 주인 행세하면서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귀와 눈과 코와 입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릇 참된 정신이란 남과 화합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병입니다. 때문에 위로를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출처: ‘장자(莊子)’의 ‘서무귀(徐無鬼)’

변화하고 흔들리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표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가, 그 내면에서는 일정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는 결과들(Kim & Park, 2000; Park, Kim & Lee, 2004)이 있다. 그런데 가치의 연속과 변화 정도가 세대간에 큰 폭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Park, Kwon과 Koo(in press)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를 갖기 원하는 이유에서 세대차이가 있었는데, 예컨대 젊은 어머니들일수록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노후에 외롭지 않음’ 등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은 역사가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대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과 관련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명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이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 특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진보지향적이었고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 모두,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

정의 화목을 추구하는 정도가, 사회봉사라든가 자아실현 및 부귀영화를 생활목표로 삼는 정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을 때, 한국 성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IMF시대 이전의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에서나 이후의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녀의 발전’ 및 ‘화목한 가정’을 주로 의미하였다. 이러한 성취의식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규명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인의 가족관계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한국인의 삶에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박영신, 김의철, 2004b)되었다.

가정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제공하는 생활의 장이든 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관계의 집합 장소이든 간에, 한국 사람에게 있어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가족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신뢰의 원천임이 분명하다. 혹자는 ‘한국인들이 가정생활에서 가족관계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 기초해 볼 때, 어떻게 그러한 가족관계에서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족관계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가족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족에 대한 높은 신뢰와 기대를 현실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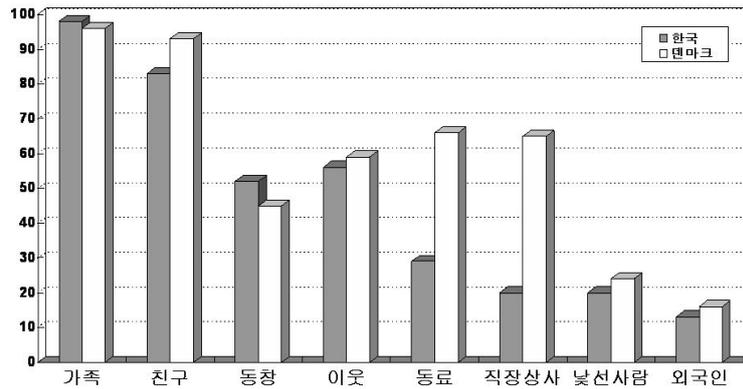


그림 20. 사람에 대한 신뢰 국제비교: 한국과 덴마크

출처: Helgeson & Kim (2002)

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하지도 않는 의미 없는 관계라면 스트레스를 지각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간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가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동창, 직장동료 등 13명의 항목을 제시하였을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자기와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서 가족들과의 관계 그 자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일부로 공유되고 있는 가족들의 존재 자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족관계에 대한 불신은, 부분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강하게 묶여져 있는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는,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집단’의 원형으로서 가족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한다. 반면에 가족 외의 집단이라든가,

또는 반드시 실제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외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인과 덴마크인의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을 비교한 결과(Helgeson & Kim, 2002; Kim, Helgesen, & Ahn, 2002)에 의하면, 두 집단간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 덴마크인은 한국인보다,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에 대한 신뢰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물론 낯선 사람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도, 덴마크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물론 덴마크인이 서양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양인에 포함되므로,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는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동창과 같이 특별한 연고로 맺어진 내집단에 대한 신뢰는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 낯선 사람이란 외국인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신뢰는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Yamagishi(1998)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신

뢰'(trust)하기보다는,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안심'(assurance)하는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이 집단 일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혈연이었던 지연이었던 학연이었던 간에 특별한 연고로 인해 우리 관계를 형성하게 된 내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쉽게 신뢰하지만, 우리 집단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 신뢰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이 지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성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물론 아는 사람을 더 믿고 모르는 사람을 믿기 어려운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고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음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는 '우리 편'이라는 벽을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때로 이러한 벽이 폐쇄의 벽이라기보다는 배타의 벽이 됨으로써,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앞의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시사되고 있는 바처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기보다, 상대방과 나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고, 새로운 관계를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맺어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 피해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즉 불확실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한국 문화를 불확실성 회피 문화로 규정한 Hofstede(1991)의 경험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을 막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고로 맺어진 우리 집단에만 몰두함으로써 신뢰관계의 질을 하락시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동종교배식의 관계 맺기와 신뢰 구축은, 내집단 구성원들에게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긍정적인 관계 재생산이나 관계 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고, 안이한 자세로 관계를 받아들여 함으로써, 신뢰 관계의 발전적 모습을 창조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내조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덤덤히 받아들여거나, 자녀가 부모의 희생에 대해 갚아야겠다는 고마움도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거나,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기 어려운 것과 매우 유사한 심리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관계'란, 단단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기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신뢰 강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타성에 젖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때로는 관계 파괴로 확대되기도 한다.

우리는 앞에서 경험과학적인 연구 결과들(그림 1~그림 6 참고)을 통해, 한국인 신뢰의식의 뿌리에 관계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 형성과정에서 '우리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쯤에서 앞에서 소개한 서무귀와 무후의 대화를 통해, '병의 의미'(김영, 2003)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병’이라는 서무귀의 충고를 통해, 우리에게 병의 의미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장자의 지혜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우리 집단으로 확대해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집단만 생각하고 배타성을 지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신풍조의 병폐들과 무관하지 않다. 신뢰 형성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갖는 장점들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며, 우리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닌 열린 사회가 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하겠다.

2. 합리와 정서의 조화 및 공과 사의 분별

올해 한국경제 상황을 축약해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분배 성장 논란’ ‘불확실성’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은 1년 내내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되어 갔다. -

한국 경제와 관련해 ‘핀더멘탈(경제기초)은 좋는데 센티멘탈(정서)은 안 좋다’는 말도 1년 내내 화제였다. 외국계 투자 자본들은 한국 경제의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평가는 낮다.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작년 18위에서 올해 29위로 11단계 낮췄다. 특히 정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러한 추락의 원인이 됐다. -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는 오른쪽 감박이를 놓고 왼쪽으로 돈다’는 말로 비아냥거린다. 그만큼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당연히 한국경제에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한다.

출처: 조선일보 (2004년 12월 17일)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으로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 경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를 신뢰하는 이유(그림 7 참고)로서 ‘정서적 배려’가, 청소년이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그림 8 참고)로서 ‘의지가 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유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그림 19 참고)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업지도’와 같이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스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같이 관계지향적인 신뢰의 기반과 더불어, 세 번째로 ‘아껴주고 관심 있음’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이 청소년을 아껴주고 관심 있게 대해준다고 지각할 때 청소년들이 선생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은, 역시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유대가 신뢰 형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국 사람들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재확인할 수 있다. Kim(2002)은 관계적 자기개념의 발달을 독립적 자기개념의 발달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성장 발달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독립적 자기개념의 특성을 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와 심리적인 의존은 유지되나 물리적인 의존이 점차 약화되다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됨에 따라 부모와 대화를 통해 서로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를 대부분 형성하였다. 반면에 한국과 같은 관계 문화에서 관계적 자기개념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아동기나 동일하게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심리적 의존관계와 물리적인 의존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부모와 부분적으로 겹쳐진 자기개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

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공유된 자기개념을 갖고 있고, 정서적 유대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토착적(박영신, 김의철, 2004a)인 것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서양인의 시각으로 볼 때 자칫 미성숙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그것은 오해이며 한국적인 관계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하튼 이러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여러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교류 과정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사학생관계나 친구관계 및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교류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그러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그 기저의 흐름을 보면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집단역동을 보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공식 회의 이후에, 회사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술상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는 공식적인 모임이 끝난 뒤에 뒤풀이라든가, 소위 2차 3차로 이어지는 후속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 있다. 결국은 이러한 모임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고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으며 우리 내집단의 결속력을 공고히 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성취의식에서도 정서적 지원이나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써, 학생과 성인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MF시대 이전에(김의철, 박영신, 1998)도 마찬가지였고, 성공만이 아니라 실

패 상황(박영신, 김의철, 1999)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였다. 즉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심리적으로 격려해주고 이해해 주며 칭찬하는 등 정서적으로 지원받는다느 느낌의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에서의 결과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형성에서 정서교류의 중요성 그 자체는 한국 문화에서의 토착적인 특징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정서에 치중되다보니, 객관적인 이성적 토대나 결정이나 일의 추진이 약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일에서 연고관계 등에 대해 정서지향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투명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고, 자칫 공과사가 구분이 되지 않으며,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래 그림 21은 국가별 투명성 지수를 국제 비교한 결과(국제투명성기구, 2002)이다. 91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이 매우 높은 투명성 지수를 나타내었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경제적인 후진국들이 대체로 낮은 투명성 지수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훨씬 상위에 속하는 국가이나 투명성 지수에서는 42위로서 중간 정도 밖에 안 되는 낮은 순위를 획득하였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 경영에서조차 ‘감성 경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감성적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직에서 사람들의 정서가 움직여졌을 때, 진정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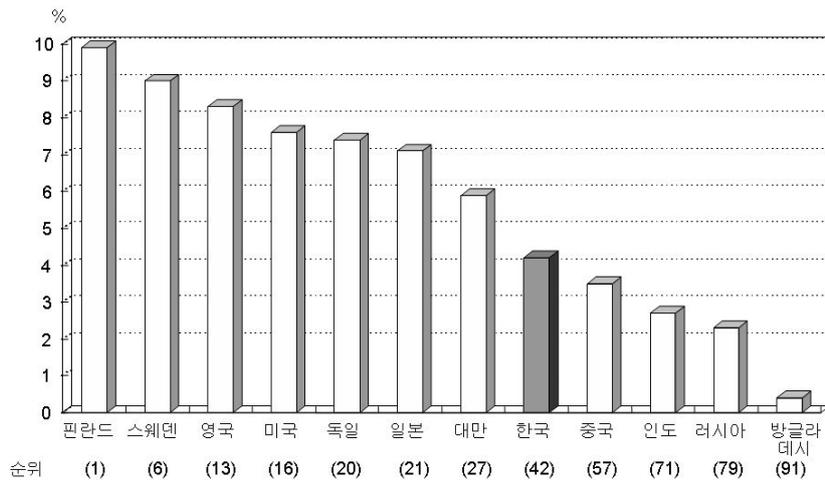


그림 21. 국가별 투명성 지수: 국제 비교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2002)

게 관찰할 수 있다. 감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에서는 정서지향적인 경향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 간의 교류가 있는 조직이나 상황에서는, 한국이 투명성이 낮은 사회로 평가되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정이 흐르는 좋은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부패의 온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집단 구성원 간에 상호 충분히 이해되는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오른쪽 감빡이를 키고 왼쪽으로 도는 차’와 같이 보이고 평가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구촌 시대에 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서와 합리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생활 속에서 소화하고 실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 향상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한국 사

람들의 정서지향적인 특징들에 대한 오해도 줄어들어 나가며 우리의 토착적인 장점으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뢰의 기준으로서 자기조절과 더불어 환경 통제 및 객관적인 능력의 균형

어떤 남자가 과거시험을 앞두고 밤낮으로 걱정하자, 그의 아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당신이 글 짓는 것을 보니 참 어려운 일이군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는 일처럼 힘든 것 같네요”
 “그래도 당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요”
 “어쩌서요?”
 “당신의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 있지만 내 머릿 속에는 글이 없기 때문이요”
 출처: 명나라 풍몽룡의 ‘소부 부류(笑府 腐流)’

앞에서 경험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부모가 자녀를 신뢰(그림 13 참고)하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신뢰(그림 14 참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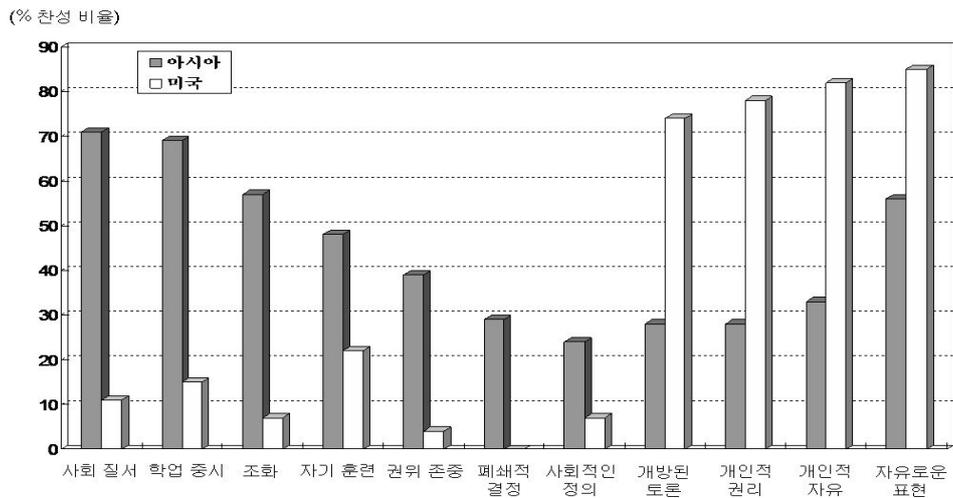


그림 22. 가치에 대한 국제비교: 아시아와 미국

출처: Hitchcock (1994)

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성실함’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청렴결백’이 가장 많이 지적(그림 15 참고) 되었으며,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자질로서 한국 사람은 덴마크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성(그림 16 참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신뢰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끊임없이 자기수양 하는 인격자를 인정하고,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각자의 분수를 지키고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을 신뢰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람들의 경향은, 자기훈련을 중요시 여기는 아시아인들의 가치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도리 수 있다. 아시아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가치를 비교한 그림 20을 보면, ‘자기 훈련’ ‘조화’ ‘사회 질서’와 같은 범주들에 대해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표현’ ‘개인적 자유’ ‘개인적 권리’ ‘개방된 토론’을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미국 사람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아시아 사람들은 보다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사람들이 ‘조화’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집단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도 거듭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과거의 성공(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Kim & Park, 2003b)과 미래의 성공(박영신, 김의철, 1999)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의 학생이나 성인 모두 인내 노력 의지력과 같은 개념을 대표적으로 포함하는 ‘자기 조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실패의 원인으로 ‘자기 조절’을 가장 많이 반응(박영신, 김의철, 2004b)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외에 수학성취와 노력귀인을 국제 비교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인식에서 노력귀인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학을 잘 하기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이나 강한 긍정을 나타낸 중 2 학생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OECD 국가들의 평균은 88%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가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현저하게 반응율이 낮았고, 미국도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에 속했다. 분석 대상 국가들 중에 한국의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노력의 중요성을 많이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이나 성인들이 성공을 위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을 살펴보면, 도덕성이나 자기조절은 중요하지만 능력을 신뢰의 이유로 간주하는 경향은 매우 낮았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자녀의 능력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청소년들이 친구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도 친구의 능력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신뢰하는 이유로는 부하 직원의 능력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성실함’ ‘무조건적인 신뢰’ ‘정서적 배려’와 같은 다른 이유들에 비해 훨씬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 신뢰의 기준으로 능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시험을 앞둔 남자가 ‘작문의 어려움’(김영, 2003)을, 아이를 낳는 것보다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머릿속에 글이 없기 때문이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야 산통을 겪고 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만약 뱃속에 아이가 없다면 아무리 배가 아픈 것을 견뎌도 해서 아이가 탄생될 수 있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력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노력이나 인내 의지 등과 같은 개념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만을 신뢰의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이와 더불어 환경 통제 및 객관적인 능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이 대단한 미덕인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환경을 관리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장점이나, 환경을 통제하는 통찰력이나 안목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이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Park & Kim, 1999)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심리들이 이 글에서 분석되었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걸맞은 매우 토착적인 심리현상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식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 본다면, 유지비용을 요구하는 신뢰관계, 신뢰관계 유지비용의 핵심요소로서 자기조절, 자기조절을 통한 눈높이 맞추기와 정서적 지원, 예의 표현으로서 겸손과 배려, 자기주장효능감(Bandura, 1997)과 질적으로 다른 관계효능감 등을 우선 대략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의 개발과 관계효능감의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효능감은 자기주장효능감과도 질적으로 다른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인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식을 심리현상들에 대한 통찰을 중심으로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 글을 시작하며, ‘자기 본래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려 결국 기어서 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년의 모습을 상기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 본래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걸음걸이를 보다 멋있게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성찰적 분석과 더불어, 폐쇄성에서 벗어나 외부 사회와 문화와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글에서 다루어진 일부분이 얼마나 진실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장님이 코끼리 더듬고 나서, 코끼리를 ‘기둥 같다’ ‘벽 같다’고 각자 결론 내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진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구슬 꿰듯 꿰어 코끼리의 진정한 전체 모습을 그려내는 그러한 작업의 한 부분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직장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51~152.
- 국제투명성기구. (2002). 2001년 국가별 부패지수. <http://www.transparency.or.kr/documents/cpi2001.html>.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영. (2003). 네티즌과 함께 가는 우연산책. 서울: 한울.
- 김영. (2004). 한국의 우연. 서울: 현암사.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 문화심리학 총서 5.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성백효. (1993). 논어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원.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세대 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 윤철경. (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진일. (1997). 유교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조선일보. (2003년 1월 18일). 엄마, 아빠 싫어 집엔 절대 안 가요.
- 조선일보. (2003년 12월 11일). '직원은 가족' 25년간 매달 생일잔치 챙겨: 보령제약 회장, 사원 생일잔치 300회 맞아.
- 조선일보. (2004년 12월 17일). 기자들이 말하는 명암 200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04). 해밀.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교육지표.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 총서2. 서울: 교육과학사.
- Helgeson G., & Kim, U. (2002). *Good government: Nordic and East Asian perspectives*.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 Hitchcock, D. I. (1994). *Asian values and the United States: How much conflict?*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Kim, U.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IAS Reports, No. 21.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Kim, U.,

- Aasen, S., & Ebadi, 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Helgesen,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2), 317~35.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ur Allgemeine Padagogik.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a). Manage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l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role of trust and leadership. 2003년도 한국기업경영학회 하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63.
- Kim, U., & Park, Y. S. (2003b).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 Kim, U., Park, Y. S., Kwon, Y. U., & Koo, J. (in press). Value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Yamagishi, T. (山岸俊男, 1998). 信頼の構造: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2001). 신뢰의 구조: 동 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1. 3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1. 17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rust in Korean culture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rust in Korean culture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First, this paper raises central questions that arise in Korean families, schools, companies and society: 1) Why are some Korean families disintegrating? 2) What core values do Korean schools teach? 3) What are the goals that Korean companies pursue? 4) Does trust exist in Korean society? Second, this paper reviews a series of empirical studies conducted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three major themes: 1) trust is based on relational culture and ingroup identity; 2) emotional attachment and bond provide the basis of trust; 3) the emphasis on cultivation of virtue through constant self-cultivation rather than ability and the control of the environment. Third, this paper raises centr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1) the extension and expansion of trust beyond the narrow confines of the family and ingroup to include outgroup members; 2) recognition and balance of public rationality and private emotions and relations in society; 3) the achievement of balance between self-regulation and the control of the environment.

key words : Trust, indigenous psychology, relational culture, morality, emotional relatedness, self-regulation